

“2027년 AI 시장 대확장 도래… 운영개선 완성이 성장 기회”

SK, 이천 연구소 ‘CEO세미나’
AI·반도체로 글로벌 리더십 확보
운영개선 1.0서 3.0으로 확보 관건
2026년까지 80조 확보, 미래투자 추진

“차세대 챗GPT 등장에 따른 AI 시장 대확장이 2027년을 전후해 도래할 가능성이 높다.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SK가 성장 기회를 잡으려면 현재 진행 중인 ‘운영개선(O/I)’을 서둘러 완성해야 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핵심 사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선 운영개선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SK그룹이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경기도 이천시 skm연구소에서 ‘2024 CEO세미나’를 열고 그룹의 미래 비전과 시급한 현안을 논의했다. 세미나에는 최태원 SK 회장,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포함해 주요 계열사 CEO 등 최고경영진 30여 명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향후 AI 관련 사업 및 기술의 폭발적인 성장을 전망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 그룹사 역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2일 경기도 이천 SKMS연구소에서 열린 ‘2024 SK그룹 CEO세미나’에서 폐막 연설을 하고 있다. /SK

량 집중을 주문했다. 그는 상반기 진행한 경영전략회의와 이천포럼에서도 같은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최 회장은 “SK가 성장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운영개선을 서둘러 완성해야 한다”며 “운영개선은 단순히 비용절감과 효율화를 의미하는 게 아닌, 본원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무제표에 나오지 않고 측정되지 않지만 경영에 있어 중요한 ‘기업가정

신’, ‘이해관계자 소통’ 등을 강조했다. AI 사업 방향은 SK가 보유한 기술력, 그룹 계열사 간 또는 외부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가장 저렴하고 우수한 AI 데이터센터(DC)를 확보해 그룹 AI 사업을 글로벌 스케일로 확대하는 쪽으로 선정했다. 핵심과제로는 반도체 설계, 패키징 등 AI 반도체 경쟁력 강화와 고객 기반 AI 수요 창출, 전력 수요 급증 대비한 에너지 솔루션 사업 가속화

등을 제시했다.

SK그룹은 앞서 6월 진행한 경영전략 회의에서 2026년까지 80조 원을 확보해 AI 반도체 등 미래 성장 분야 투자와 주주환원 등에 활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운영 개선을 통해 3년 내 30조원 잉여현금흐름(FCF)을 만들어 부채비율을 100% 이하로 관리한다는 목표도 설정했다.

최 회장은 CEO들에게 “과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거시(Macro) 환경 변화를 잘 보고, 사별 특성에 맞게 사업 환경 예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운영개선’ 달성도를 정량화 및 측정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올해 본격화 한 SK그룹의 운영개선이 가속화 하며 최근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말 약 84조원에 달했던 그룹 순차입금은 손익 및 현금흐름 개선, 자산 매각 등 운영개선 활동을 통해 올 2분기부터 감소세로 돌아섰고, 3분기 말에는 70조원대로 낮아지는 등 주요 재무지표에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219개였던 계열사 수도 올 연말까지 1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CEO들은 잉여현금흐름(FCF) 극대화 등 ‘운영개선(O/I) 1.0’ 활동으로 재무구조 안정화라는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보고, 앞으로는 제조, 마케팅 등 ‘운영역량’을 제고하는 ‘운영개선 2.0’을 통해 본원적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결의했다. 운영개선 2.0 후에는 시장과 고객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기술역량 중심의 ‘운영개선 3.0’으로 진화시켜야 한다는 방향성에도 인식을 같이 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SK하이닉스가 시장 선도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요인을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8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했지만,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앞세워 올해 3분기 영업이익 7조 원을 달성했다. 이는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영업이익이다.

곽노정 SK하이닉스 CEO는 ▶낸드 플래시 생산기지인 청주 M15을 HBM 생산라인으로 구축하는 과감한 의사결정 ▶‘원 팀 정신(One Team Spirit)’ 기반 아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조직문화 등이 반전의 기회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나란히 ‘회장’ 단 정유경·정교선… 신세계 ‘쇄신’ 현대 ‘안정’

신세계·현대 큰폭 정지임원 인사단행
신세계, 계열 분리로 수익성 강화 집중
현대부, 단일 지주회사 체제 안정적 경영

지난주 신세계그룹과 현대백화점그룹이 나란히 큰 폭의 내년 정지임원 인사를 단행하면서 업계 이목을 집중 시켰다.

정유경(주)신세계 회장과 정교선 현대홈쇼핑 회장 등 양사 모두 새로운 회장을 배출하면서다. 이번 인사를 통해 양사의 방향이 달라질 전망이다.

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는 지난해(9월)보다는 다소 늦게 인사를 단행했고 현대는 지난해와 비슷한 시기에 됐다. 실제 유통업계는 올해 큰 폭의 인사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신세계는 핵심 계열사 대표 전부를 교체하는 등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도 큰 폭의 인사를 단행했다.

◆신세계, 분리 통해 수익성 개선한다
올해 회장직에 오른 정용진 회장이



정유경
(주)신세계 회장



정교선
현대홈쇼핑 회장

본업 강화에 따른 수익성 개선을 강조하면서 수시인사를 카드로 내밀었다.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기업 경쟁력을 빠르게 높이겠다는 전략으로 보여진다.

이에 정유경(주)신세계백화점 회장을 필두로 G마켓과 SSG닷컴, 신세계건설 대표 등의 수장들이 바뀐다.

이로써 신세계는 정유경(주)신세계 회장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백화점·이마트 부문을 계열 분리해 각자 독자경영을 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번 인사가 신세계그룹 전체의 수익성 개선에 도움

이 될 거라는 기대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세계 측은 역시 이번 인사를 발표하면서 “올해가 계열 분리를 통해 성장의 속도를 한층 더 배가시킬 수 있는 최적기”라고 밝혔다.

신세계는 이르면 이달 계열 분리 선언을 할 것으로 전망한다.

정용진 회장이 이마트, 신세계푸드, 조선포털 등을 보유하고 있는 이마트그룹을, 정유경 회장이 신세계인터내셔널, 백화점, 센트럴시티 등을 보유한 신세계그룹을 갖는다는 내용이 골자다.

◆현대, 단일 지주회사 체제로 함께 경영 이끌 것

현대백화점도 신세계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큰 폭의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신세계만큼은 아니지만 핵심 계열사인 현대백화점과 현대홈쇼핑 대표가 교체됐다.

올해도 의미있는 인사를 진행했다. 정교선 현대백화점그룹 부회장이 현대홈쇼핑 대표이사 부회장에서 대표이사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교선 현대홈쇼핑

회장은 2009년부터 현대홈쇼핑 대표이사를 맡아왔다. 2012년 부회장에 오른 후 14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한 것.

아울러 현대백화점그룹 부회장직은 유지하며 형인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을 보좌한다.

이를 통해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을 보좌하고 단일 지주회사 체제의 지배구조를 기반으로 그룹 경영 전반을 함께 이끌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현대백화점그룹도 그간 계열분리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던 기업이다. 일각에선 이번 인사가 이같은 소문을 일축하게 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교선 부회장의 현대홈쇼핑 회장 승진은 업계의 불황 속에서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중장기 성장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룹 측은 강조했다.

◆갈지만 다르다

양사의 인사 결은 갈지만 다르다. 기업을 이끄는 총수가 젊다는 것과 남매·형제경영이라는 점, 그리고 젊은 트랜

스에 어둡지 않다는 것.

반면 신세계는 정용진 회장과 정유경 회장이 몇개월 차이로 나란히 회장직에 올랐지만 정지선 회장은 2007년 회장직에 올랐다. 당시 정지선 회장의 나이는 35세다.

또 정용진 회장은 수익성 개선을 위해 정유경 회장을 전략적인 카드로 내밀어 계열을 적극 분리했다면 정지선 회장은 동생(정교선)을 예우해 현대홈쇼핑 회장으로 승진시키며 단일 지주회사 체제의 지배구조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정교선 부회장은 정지선 회장을 보좌하며 단일 지주회사 체제의 지배구조를 기반으로 그룹 경영 전반을 함께 이끌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유통업계의 임원 인사는 신세계, 현대를 시작으로 롯데, CJ그룹도 인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빛나 기자 vlna@

해리스 대세 속 트럼프 방위비 압박… 한반도 정세 변화 예고

》 2면 ‘美 대통령 선거 D-1’서 계속

인구에 비례해 이번 대선에서 가장 많은 선거인단을 부여받는 주는 캘리포니아(54명)고, 이어 텍사스(40명), 플로리다(30명), 뉴욕(28명) 순이다. 더타임스는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리스 후보가 선거인단 276명을 확보해 트럼프 후보(262명)보다 14명 더 많을 것으로 예측했다.

칼 비알리 유거브 데이터과학 부대표

는 “이번 대선은 사실상 7개 주에서 실시되는 선거라고 후보들도 여기고 있다”며 “해리스 후보는 몇 달 전부터 대체로 선두 자리를 지켜 왔고,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을 만큼 경쟁주에서 앞서고 있다”고 밝혔다. ‘러스트벨트(쇠락 공업 지대)’에 속하는 펜실베이니아-미시간-위스콘신은 1992년 대선부터 민주당이 승리한 ‘파란 장벽’으로 분류되는 지역이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던 2016년에는 일시적으로 공화당이 승리했다. 그러

다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하던 2020년 대선에서는 다시 민주당을 선택했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그 어느 후보로도 쏠리지 않고 있어 핵심 경쟁주로 분류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어느 후보가 당선될 때 우리나라 정세에 더 유리한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우리나라에는 대체로 부정적 요소가 많을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대표적인 것이 주한 미군 주둔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 요구다.

트럼프 후보는 지난 달 한 대담에서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이라고 칭하면서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한국에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 6000억 원)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후보가 언급한 100억 달러는 한미가 타결한 2026년 방위비 분담금(1조 5192억 원)의 9배에 달한다. 그는 한국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다만, 북미 대화 재개는 트럼프 후보에게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김정은 총비서는 핵 시설과 함

께 핵능력 고도화 방침을 천명하면서 이것이 포기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임을 강조했다. 이번에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지난 2017년 트럼프 집권 당시 북미 회담을 통해 김정은과 비핵화 협상을 열었던 전례를 다시 만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와 반대로, 해리스 후보가 당선될 경우 민주당의 외교 정책을 그대로 계승해 한미동맹이 지속되고 공고해질 것이라 시각이 지배적이다. 해리스 후보는 방위비 분담금 사안도 “(한국 정부가) 이미 상당 부분 분담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원승일 기자 won@